

일 시	2019.08.23.(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2층)

2019년도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 회의록 >



남 동 구 의 회
Namdong-Gu Council

<회의개요>

- ◆ 일 시 : 2019. 08. 23.(금) 14:00 ~ 15:20
- ◆ 장 소 : 의회 운영위원회실(2층)
- ◆ 참 석 : 9명(위원장, 위원 7, 간사)
- ◆ 안 건 :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건
 - 총무위원회 : 오스트리아, 스위스 / 10.21-10.27(5박7일) / 8인
 - 사회도시위원회 : 호주 / 10.21-10.28(6박8일) / 7인

<주요발언내용>

◆ 간 사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소개
- 심의회 진행방법 안내

◆ 위 원 장

- 민간위원 중 위원장 호선 진행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선언
- ‘2019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의안 상정
- 의안 보고 요청(간사)

◆ 간 사

<안건보고>

- 본 안건은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에 의하며, 선진 국가의 기관 방문 및 현장 시찰 등을 통해 우리구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금번 국외출장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총무위원회는 총 8인이 10월21일부터 27일 까지 5박7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스위스로 출장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관방문 등을 통해 우수 정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 사회도시위원회는 7인이 10월21일부터 28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호주로 출장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기관방문, 특별시찰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 위 원 장

- 구의원(위원)은 소관위원회 의사 참여 불가로 총무위원회 ○○○ 의원 퇴실 요청
- 의안 제안설명 요청(총무위원장)

◆ 총무위원장

<의안 제안설명>

- 목적과 동기는 소관 업무인 지방자치, 지방행정, 문화 및 관광, 안전과 청소 그리고 환경 등 다양하고 폭넓은 우수 정책에 대하여 전문을 넓히고 이에 따른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우리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10월21일부터 10월27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스위스로 출장하게 되며, 참가 인원은 의장님과 총무위원 7인으로 총 8명이며, 소요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공식기관인 의회 방문, 관광청 등을 공식 방문하여 선진행정을 직접 시찰하고 수집한 우수 사례를 우리구의 정책 수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 일정은 별첨한 연수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국외연수 일정을 총괄 기획 운영하고,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할 계획입니다. 출장경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 범위 내에서 산출하였습니다. 총 경비 32,492천원으로 1인당 평균 4,061천원이 산출되었으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상한액이 300만원으로서 구의회에서 예산으로 총 2,400만원을 지원하고, 부족한 경비는 개인 자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출장효과로는 선진 국가의 기관 방문 및 현장시찰을 통해 선진지에서 수집한 우수 사례에 대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위 원 장

- 총무위원회 의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 진행

◆ 발 언

- 위원 3 : 공식기관 방문지 섭외가 확정 안됐는데 맞나요?
- 총무위원장 : 이미 협의가 돼서 방문하는데 일정을 마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3 : 보조자료에는 9.2일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진 뭔가요?

- 간사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럽은 공식기관 방문을 6주전부터 받는다고 하여 심사위원회가 가결되면 컨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공식기관 방문을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위탁기관을 공식기관 방문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어쨌든 위탁기관이 1차적으로 컨택을 했을 때 다 가능하였고, 심사위원회에서 가결되면 공식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 3 : 사회도시위원회는 확정인데요, 그럼 두곳이 틀리네요?
- 간사 : 그것은 사도쪽 업체가 미리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했을 때, 호주는 8주전에 컨택이 들어가야 하고, 유럽은 6주 전에 컨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 위원 3 :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하는게 맞는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세부일정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스위스로 넘어가는데 7시간이 걸리는데, 5일 동안 활동 중 하루를 그렇게 일정을 짜야했었는지, 5일 밖에 안되는 일정안에서....
- 위원 4 : 제가 전에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갔었는데, 실제로 7시간씩 걸리지 않습니다. 3시간 30분 정도 걸렸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정확한 시간을 해줬으면 좋았을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관 방문이 픽스가 안된 상태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교육청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했을때 중국같은 경우 까다롭고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 컨택을 하는데 만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6주, 8주 전부터 스타트를 한다면 컨택을 해보시고 확정된 것에 대해 나중에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1 : 나중에 일정이 잡히는 대로 위원들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답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간사 :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럽이나 호주같은 선진국은 우리나라처럼 기관방문 섭외가 쉽지 않고, 기관 섭외비 등 모든게 다 금액이 지불되기 때문에 심의회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요청을 하면 비용이 발생이 돼서 혹시라도 심의회에서 부결되었을 때 업체나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식기관 방문을 중점적으로 책임지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심혈을 기울였고, 향후 백프로 섭외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체할 수 있게 최대한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섭외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 원 장

- 이해들 되셨습니까?

◆ 발 언

- 위원 1 : 이해를 하고 있고, 나라 선정은 잘했는데, 5박7일 짧은 시간에 2개국을 가는건 너무나 촉박하게 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기간을 늘리면 예산 때문에 또 그렇지요. 어차피 국민들을 위해 좋은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구예산을 가지고 갔다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정선 차려서 한 군대를 가더라도 집중적으로 스위스는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배우고, 오스트리아는 예술의 고장이니 그런 것을 접목해서 온다던가, 짧은 기간이나마 접목해서 배워와서 남동구를 위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위 원 장

- 또 질의하실 분 계신지요?

◆ 발 언

- 위원 3 : 스위스는 일정상 공식방문 두곳, 특별시찰과 현장시찰로 되어있는데, 특별시찰이 뭔지 모르겠고, 가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지방자치나 분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과제를 지방의회와 주민들간의 발전관계 권한이양의 방향으로 되어있는데, 남동구의지방분권 관련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와 제도가 다른데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 총무위원장 : 특별시찰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 견학하게 되는 것으로, 남동구도 인천대 공원과 소래생태공원까지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계획이나 구상, 소래포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구도심에 대한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이런 경우 현장확인을 하고 브리핑을 받는데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기관 방문에 따른 이론의 한계가 있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자 선정했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도 자비를 들여서 거기까지 가는 이유는 충분히 공감대가 될 수 부분이 있을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1 : 삼사년째 심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보다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래도 목적에 선진국가 기관방문, 현장시찰 및 우수사례에 대해 남동구와 비교분석하

여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거를 통해서 좀 더 발전된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총무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 위원 4 : 제가 스위스, 오스트리아 다녀온 경험도 있고, 이번에는 오스트리아에서 일주일 머물렀는데, 공식기관 방문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느낀게, 오스트리아는 정말 일회용품을 안써요. 물도 유리병에 담아주고, 유리컵을 쓰고, 트램을 거의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자체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 담당자님들께서 가서 보신다면 굳이 이렇게 기관방문을 하지 않아도 하다못해 여기는 공원이 잘되어 수목조성을 이렇게 하는구나, 환경조성을 이렇게 하는구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방문을 굳이 안해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음악가들 묘지도 있고, 또 플래시몹을 해도 클래식으로 피리를 불고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첼로를 들고 또 다른 사람은 바이올린을 들고 나타나요. 그냥 그런거에도 문화를 배우고 견학하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기관을 무리하게 방문하고 엽배이는거 보다 차라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과감하게 공식기관을 두어군데로 정하고, 실질적으로 공원을 볼거라하면 그거와 관련된 기관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라이브로 리얼하게 목적에 맞는 곳으로 현장을 방문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픽스가 됐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라도 그런식으로 해서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가시겠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인 만큼 유익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 네. 일단 저희도 고심을 해서 이 자료를 준비한거고요. 기관방문에서 의회방문은 집행부 견지역할을 하다보니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잡았던 부분도 있고요. 특별시찰은 남동구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조각장은 없지만 집하장이라든지 LH로 넘어갔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서 다시 지어야 하는 시국인데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시죠. 왜냐면 일단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잠시 보관하는거조차 싫어하시니까.. 근데 정말로 이런 관광벨트가 형성이 되면서 하나의 재활용으로 예쁘게 잘 지을 수 있고 누구나 거기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

들도 저희가 이 시국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조금 무리하게 잡아봤는데, 명심하고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 위 원 장

- 또 질의하실 분 계신지요?

◆ 발 언

- 위원 3 : 업무내용은 직접 정하셨는지요?
- 총무위원장 : 네. 관심있는 분야를 서로 상의하고 조율해서 정했습니다.
- 위원 3 : 그런데 답변을 안 해주셔서요. 지방의회 관련해서 남동구에서는 뭘 준비하고 있는지, 혹시 지방이양 일괄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 총무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 미처 준비하지 못해 죄송하고요.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숙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 위원 3 : 본인들이 선정하셨으니 잘 알고 계셔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라들을 선정한 과정에 워크숍이나 회의를 좀 더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남동구를 위해서 정책을 짜려고 고민하신 내용, 최소한 그 노력의 흔적은 저희가 좀 봐야... 작년에 GWR 다녀오셨죠? 재활용산업 관련해서, 남동구에 적용하기 위해서..
- 총무위원장 : 저희가 다녀온다 해서 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다 생각하고요.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결정하게 된 이유도 일단 적하장 문제가 많이 신문에도 나오고 이슈가 됐습니다. 그린벨트 쪽으로 해야돼서 그런 부분들을 문화관광 쪽으로 개선해 보고자 의논을 나눴던 상황입니다. 작년에 재활용 관련 다녀온 후 나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좀 미흡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행착오들이 있어 기회가 된다면 더 준비를 해서 다녀오고 성심성의껏 보고서 제출과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 위원 3 : 네. 작년 보고서에도 제기하신 문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기관보다 집중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매년 안되고 있는게 직접 계획을 짤게 아니라 업체가 짤거에 끼워 맞추려다 보니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많은 현안을 두 개 나라에 가서 끼워 맞추려다 보니 의원님들도 힘드시잖아요. 실제 현장방문 하는데 한두군데 한두시간 가시면서 제대로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되고, 그래서 매번 부실하고 매번 이 문제를 제기하고, 매번 결과는 똑같고, 이 것들 중에 집중해서 미리 공부하시고 의원님들이 다녀온 후 머리 맞대고 조례 하나만 만들어도 구민들한테 훨씬 도움되는거 아닙니까. 000의원님이 작년에 쓰레기 처리실태 파악하신다는 업무 내용이 있는데, 작년에 조인 좀 해주셨습니까. 올해는 다른분이 담당인데, 그래서 제가 공부했네요. 스위스가 소방방재청 재난 사고에서 뛰어난 라인줄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전남 소방본부에서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3개국 방문하셨어요. 보고서 내셨더라고요. 준비하려면 최소한 그런 것들은 보고 가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갔다와서 뭘 느꼈는지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 자료 다 공개되어 있어요. 이런 건 정말 좀 찾아보시고 가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 총무위원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 원 장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발 언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 원 장

- 심사의결서에 가,부 작성 요청(위원)
- 총무위원회 ○○○ 의원 재입실 요청
- 의안 제안설명 요청(사회도시위원장)

◆ 사회도시위원장

<의안 제안설명>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동구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인 복지, 보육, 도시경관, 복지 등의 우수 정책에 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남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10월21일부터 10월28일까지 6박8일 일정이며, 출장지역은 호주이며, 사회도시위원 7명으로, 소요예산은 20,963천원입니다.

공식 방문 기관과 특별시찰 등 출장의 목적에 맞게 기관 방문과 현지에서 보고 배우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호주는 넓은 영토를 기반으로 천혜 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선진 복지 실현으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어 매년 살고싶은 도시에 선정되며,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식기관인 의회를 방문하여 지방 정부 운영 방향과 제도 등을 시찰하고, 시립복지관과 차일드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형태, 복지 대상별 서비스 제공 및 방향,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복지의 철학과 운영 전반을 시찰함으로써 남동구 복지와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여러분야의 특별시찰을 통해 공원조성, 녹색도시와 도시 경관, 도시 재생 현장을 시찰하여 시민의 안전은 물론 휴식공간과 관광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시청과 도서관, 건축물 등의 시찰을 통해 남동구에 접목 가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으며, 호주 시내 곳곳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광고물 형태, 교통시설물, 장애인시설물 등에 대해 현지 시찰을 통해 구민을 위한 편의정책 및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 일정은 ‘연수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국외연수 일정을 총괄적으로 기획 운영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할 계획입니다.

출장경비는 총 20,963,110원으로 1인당 평균 2,994천원으로 산출되어, 예산편성 범위 내로 추진하였으며, 호주의 정치, 도시건설, 도시계획 및 녹지, 도시경관, 건축물의 조화를 통해 천혜 자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가 발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 분야를 통해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발전하는 남동구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국외출장의 목적, 필요성에 적합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선정에 위한 업체들의 브리핑과 위탁기관의 사전 설명회 개최, 의원들간의 회의 등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호주 전문기관과 협약하여 보다 적합하게 추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원 장

- 사회도시위원회 의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 진행

◆ 발 언

- 위원 3 : 출장효과에 남동구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지원에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남동구에서 지금 사회적 약자 복지지원에 위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정책들이 있나요? 예산이 증가되거나?

- 사회도시위원장 : 예산이 특별히 증가된 부분은 별로 없는데요. 남동구 노인들이 인구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에 대해 굉장히 많이 신경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3 : 네. 근데 방문하시는 곳이 차일드케어센터여서..
- 사회도시위원장 : 저희가 다루는 분야가 복지, 건설, 교육 등 여러분야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도 있고 재생사업 같은 그런 부분도 같이 끼어있어요.
- 위원 3 : 그럼 남동구 도시재생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 사회도시위원장 : 도시재생계획은 지금 간석자유시장 주변에 저층 주거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간석3동 더불어희망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은 많이 다르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잘 살피고 오겠습니다.
- 위원 3 :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바랑가루 도시재생개발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남동구 간석시장, 만부마을, 정말 다녀오시면 이게 접목이 되겠습니까?
- 사회도시위원장 : 그렇게까지 접목이 되리라 생각지는 않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 위원 3 : 작년에도 000, 000 의원님의 경우 다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잘 배워오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아동복지 관련된 곳을 또 가셔서 배워오시겠다고 하니, 2년이나 두 나라에 걸쳐서 다양한 시설들 보고 오셨는데, 정말 남동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도시위원장 : 감사합니다.
- 위원 4 : 제가 호주도 1주일 동안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관된 맥락인데 보는 만큼 안목은 생기는 것 같아요. 결정은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요. 위원 4님 말씀처럼 차일드케어를 보면 38명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이집이나 초등규모로 봐도 아주 소학급 규모인데요. 정말 남동구 노인인구가 60% 정도라면 저희도 어르신들 등교도우미 해주시는데 늘 죄송하고 고민되는게 많습니다. 누구나 다 제대로 쓰임을 받을 때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38명 되는 차일드케어센터 방문보다는 어르신들에게 복지혜택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호주를 방문하면 좋을거 같고, 다녀와서 보고서를 근사하게 잘 썼느냐가 중요하게 아니잖아요. 일만큼

잘 반영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위원 4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싶어서 컨텐츠적인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잘 유용하게 쓰여지려면 먼저 안이 잡히면, 그냥 위원님들한테 자료주고 이런 장소를 가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 이렇게 픽스되기 전에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고민을 살짝 해봤습니다.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탐방을 가지는 거니까 심사위원님들도 만족스럽고 다녀오시는 분도 만족스럽기 위해서는 삼투함이 잘되는 준비과정이 있으면 서로 좋지 않을까 라는 제언을 해봅니다.

○ 사회도시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잘 새겨들겠습니다.

○ 위원 2 : 지금와서 개요를 질문하셔서 다시 잡고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정책개발을 하려면 당연히 공무원의출장을 가야되고, 모니터링이 필요한거를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출장경비가 세금이라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게 맞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막 쓰고 오시는거 아니잖아요. 그런걸로 나중에 질책받을 일도 없고, 그런데 중간중간 보니까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출장 한번 다녀온다고 정책개발이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실거면 의원들 중에서 정책개발 가능하신 분을 꼭 모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다녀오신후 세금 어떻게 썼는지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위 원 장

○ 사실 우리가 심사하는건 세금 때문에 그런거잖아요. 의원님들 믿고, 직원들도 믿습니다. 다녀와서 결과보고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발 언

○ 위원 2 : 그리고 비용 잘못쓰면 언론에서 말하죠. 그렇게 때문에 세밀하게 미리 준비하고 가자 이런 체제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이 한두번 가서 안되는 거 당연히 알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셔야 되고, 여러군데 갔다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한군데를 다녀오셔도 좀 좋은걸 뽑아내 오시는게 가장 목표일 것 같습니다.

○ 위원 4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주제로 또 가는거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도시위원장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잘 보고 와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하

고, 다 되지 않지만 일단은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잘 찾아서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3 : 업무는 이렇게 나눠야 하나요?

○ 사회도시위원장 : ***의원은 복지로 되어있는데, 이분은 복지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이구요. ### 의원은 또 건축쪽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나왔습니다.

○ 위원 3 : 어쨌든 많은 내용을 하시면 가시는 분도 힘드시니, 크게 두가지 정도로 나눠서 의원님들 두분, 세분이 한가지 주제로 좀 더 머리 맞대고 세미나하시고, 그래서 장소를 픽업하시고, 의안 제출해주시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좀 보여야 하구요. 이런 과정이 없고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 내용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당연히 정책이 한번 다녀온다고 바뀌지 않는건 아는데, 오히려 저는 같은 주제로 또 간다고 해도 찬성할 거 같아요. 갔다와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이 나라에서 잘하고 있어서 여긴 가봐야 할거 같아 이렇게 주장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찬성할거 같아요. 부족한 부분이 여기라고 하면 그래서 가봐야겠다고 하면요. 내년에는 또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먼저 고민하셔서 업무내용에 맞는 나라를 픽업하시고 아는만큼 보이는거잖아요. 의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만큼 가서 거리를 걷다가도 보실 수 있다 충분히 동의는 합니다. 그 준비과정을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 사회도시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두군데만 실속있게 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위원 4 : 나라가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우리안에 고민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고, 내년에는 남동구의회에서 고민해야 될것이 뭔가를 먼저 키워드를 뽑아보시고, 그걸 위해서 어디를 갈까 다른 나라 선진지 시찰을 한다고 하면 그런식으로 맥락이 있게 고민을 하신다면, 목적에 맞게 더 아이디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도시위원장 :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정말 알차게 해서 위원님들 실망 안 시키게 하겠습니다.

○ 위원 1 : 국민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로 심의를 하고 있고,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주도 우리와는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인구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맞게 심도있게 책임있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도시위원장 : 지적해주신 사항을 듣고 보니 부족한 점이 많네요. 내년부터는 더 느끼고 보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 원 장

-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 발 언

- 위원들 : 없습니다.

◆ 위 원 장

- 상정된 안전에 대한 질의 종결 선포
- 심사의결서 가, 부 선택하여 표기 요청
- 심의 결과 발표
 - 총무위원회 : 참석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가결
 - 사회도시위원회 : 참석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가결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폐회 선언